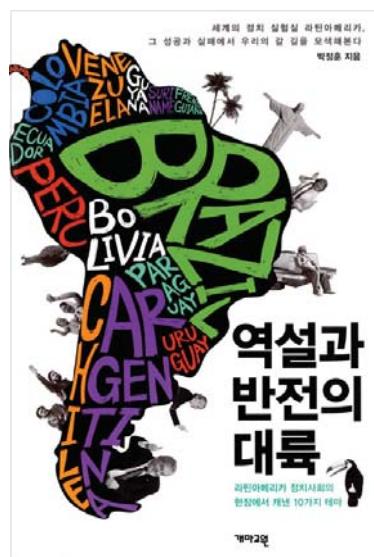


## Books

### 신간소개



이미지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저자는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과 한국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식민지에서 독립해 제3세계 국가로 출발, 독립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 군사쿠데타 후 독재정권을 거치며 인민들의 민주화운동, 민주화 이후 독재세력과 민주화세력의 정치적 대립 지속, 외환위기를 겪은 후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이어지는 사회갈등과 빈부격차 등의 부작용 발생 등이 그것이다. 한국과는 역사도, 민족도, 문화도 판이한 대륙의 나라들이지만 라틴아메리카는 온갖 정치. 역사. 사회 모델이 역설과 반전이 교차하는 가운데 등장했고 또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다른 조건에서 실행된 같은 ‘실험’과 그 결과들이 우리 나라에 주는 함의를 생각할 수 있다.

저자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브라질 삼바축구, 칠레산 수입와인, 폐루의 잉카 유적, 쿠바의 카스트로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마초국가에서 여성정치 선진국이 된 칠레, 짧은 게릴라들이 민주주의자로 변신한 우루과이, 쿠데타 주동자가 빈민의 챔피언이 된 베네수엘라, 가난한 나라에서 스웨덴을 향해 걷는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의 오늘을 정치사회적 측면을 10가지 테마에 담아 살피고 있다.

### 역설과 반전의 대륙 – 라틴아메리카 정치사회의 현장에서 캐낸 10가지 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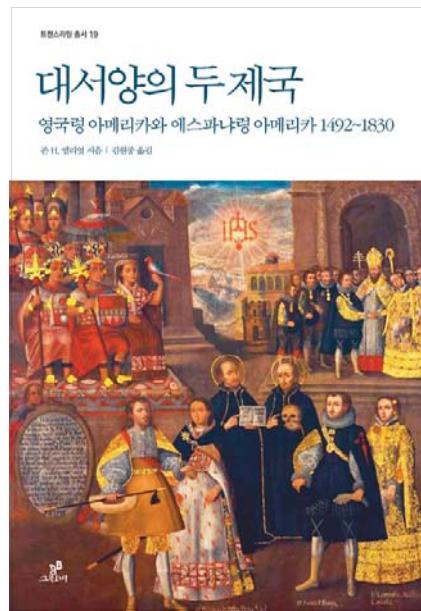
박정훈

출판사: 개마고원

출판일: 2017-08-25

ISBN(13): 9788957694282

336쪽 | 223\*152mm (A5신)



## 대서양의 두 제국 -영국령 아메리카 와 에스파냐령 아메리카 1492-1830

존 엘리엇 | 김원중 (옮긴이)

출판사: 그린비

출판일: 2017-08-30

ISBN(13): 9788976822734

1064쪽 | 223\*152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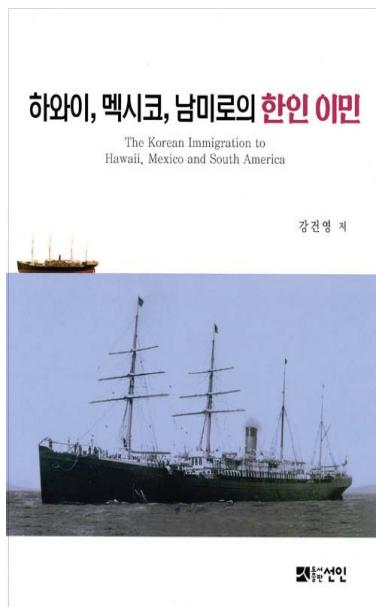
『스페인 제국사』, 『구세계와 신세계, 1492~1650』 등의 저작으로 알려진 존 H. 엘리엇의 원래 전공 분야는 16, 17세기 에스파냐 역사였으나 후에 에스

파냐령 아메리카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그는 근대 초 히스패닉 세계 역사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에스파냐 근대사 연구를 이끌고 있다.

『대서양의 두 제국: 영국령 아메리카와 에스파냐령 아메리카 1492~1830』에서 저자는 근대 초기의 아메리카에 세계 제국을 건설한 유럽의 두 나라 에스파냐와 영국이 신대륙을 발견, 정복, 식민화하고,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그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에 이르는 과정을 비교사적 방법으로 전개해나간다.

『대서양의 두 제국』은 북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가 같은 유럽 국가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영국인들이 건설한 미국)은 고도의 민주주의를 꽂피우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계 최강국으로 발전한 것과 대비적으로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건설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왜 혼란과 정치적 독재 그리고 제3세계화 같은 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라는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 하와이, 멕시코, 남미로의 한인 이민



이미지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강건영

원제 The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Mexico and South America

출판사: 그린비

출판일: 2017-0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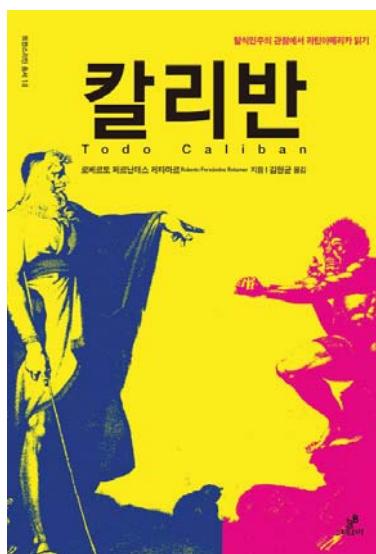
ISBN(13): 9788976822673

240쪽 | 220\*150mm

이 책의 저자인 강건영은 재일한인 의사로서 재외한인 문화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왔다. 『하와이, 멕시코, 남미로의 한인 이민』은 전작 『중국, 중앙아시아, 극동 러시아 기행』에 이어, 2014년 1월부터 중남미 멕시코 및 미국 하와이를 방문하고 조사한 ‘한인 이민사’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구체적으로, 기행에서 이루어진 인터뷰들을 통해 110여 년 전에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낯선 나라로 향했던 이들, 이주노동자와 '사진신부'로 시작되었던 아시아 및 미주 여러 나라의 한인계 후손들 중에 하와이 이민사 연구자나 멕시코 이민사 박물관관장과 같이 뛰어난 여성 지식인들이 있음을 확인하며 받은 감명을 저자 본연의 글로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즈미 토시오 고베 여자학원대학교 명예교수는 저자가 오래전부터 해외로 이주한 한국민들이 조국에 대해 갖는 의식과 이중 국정의 아이덴티티 등에 주목하며 현장 가까이에서 이민 역사의 검증을 실현했다고 말한다.



이미지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 칼리반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레타마르 | 김현균 옮김

원제 Todo Caliban

출판사: 그린비

출판일: 2017-07-05

ISBN(13): 9788976822673

240쪽 | 220\*150mm

셰익스피어의 극중 인물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해석되어 온 인물인 『폭풍우』(The Tempest)의 등장인물 칼리반. 이 책은 ‘칼리반’이라는 인물을 키워드로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탈식민주의적인 주체 및 지식/문화의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쿠바의 시인, 에세이스트, 평론가로 20세기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지성이라는 평가를 받는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레타마르가 1971년에 발표한 글인 「칼리반」을 비롯하여 ‘칼리반’이라는 ‘개념적 인물’과 관련해 쓰인 다섯 편의 글을 묶었다. 이 책은 ‘우리 아메리카의 혁명적 지식인을 어떻게 낳을 것인가?’라는 그람시적인 질문을 맴돌면서, 일종의 라틴아메리카 지식인 지도 그리기를 통해 민중적 기반의 해방정신으로 무장한 비판적 지성, 대항 헤게모니 투쟁에서 ‘칼리반’과 연대하는 혁명적 지식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셰익스피어의 『폭풍우』의 인물들에 부여되었던 정치·문화적인 의미를 재구성하는 면밀한 해석학적 독해를 통해 기존의 중심적인 이해에 문제를 제기한다. 저자는 흔히 ‘야만적인 괴물’로 묘사되는 칼리반과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요정 아리엘의 대립 관계 속에서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흥미롭고 유용한 기표를 발견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카리브 해 연안 지역의 지식인들에게서 ‘칼리반’은 우선 미 제국주의자의 상징으로, 최근에는 제3세계 민중의 상징으로 역변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